

# 곡성체리, 미국산에 도전장

곡성군, 적극 정책 2022년까지 60ha 면적 확대  
2025년 생산량 180톤·생산액 36억 1차 목표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대형 마트, 온라인마켓을 중심으로 미국산 체리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미국산 체리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체리에 대한 선호도 상승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20년 농업전망(KREI)에 따르면 2005년 987톤이던 국내 체리 수입량이 2019년에는 15,826톤으로 16배 증가했다. 미국산 체리 수입 국가 순위 2위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국제적으로도 체리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2016 국제체리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체리 생산량은 2000년 1백 70만 톤에서 2015년 2백 70만톤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체리의 기능성, 맛, 편이성 등이 소비 확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내 체리산업은 통계청 농산물 재배 현황 조사 품목에 체리가 제외돼 있을 정도로 취약하다. 일부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600ha 수준의 면적에서 국산체리

가 생산되고 있다고 추산할 뿐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 체리 최대 주산지는 경주시로 60ha에서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한다. 국내 생산량의 70%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리고 곡성, 대구, 창녕 등이 국산 체리 재배 중심지로 경주시의 뒤를 잇고 있다. 그 중 곡성군은 지난 4년 동안 적극적인 체리 육성정책으로 30ha의 재배면적을 조성하며 국산 체리 주산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첫 수확의 결실을 맺기도 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6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025년 생산량 180톤과 생산액 36억 달성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곡성군이 체리산업에 뛰어든 것은 국내 체리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과감한 육성정책을 제안한 유진근 군수로부터 시작됐다. 아직은 도입단계로 생산, 유통, 6차 산업화 등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 소득과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한마음으로 품질 좋은 체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곡성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을 갖는 것이다. 체리 재배가 쉽지 않은 탓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10회 이상의 교육 및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은 농가별로 재배기술 수준 편차가 심한 편이지만 재배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 상향 평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별 기준, 제품 포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곡성농협APC와 협업을 통해 공선체리를 도입하기도 했다. 대형 소비자시장에서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여러 업체에서 곡성체리 납품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와 유통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더 품질 좋은 체리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곡성군 측은 신선도와 안전성 면에서 국산체리가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리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편인데 미국산의 경우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데에만 적어도 3~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전체 체리 소비량은 줄지 않은데 반해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안전성, 신선도 등 자 국산 체리의 품질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 국민의 체리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국산체리가 미국산을 앞마나 대체할 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성과 좋은 품질을 갖춘다면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곡성=김명희 기자

# 담양군과 함께 바이러스 막아내는 구강면역 기르기

초·중·고교생 대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용품 지원



담양군이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위생용품을 지원한다. 이는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개

인위생의 중요성이 커진만큼 구강위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구강을 통해 감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 구강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만 해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담양군보건소는 구강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총치예방을 위해 희망하는 어린이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불소도포를 지원하며 그 외에도 구강검진, 충치치료, 잇몸치료, 만 19세 이상 연 1회 보험 스케일링 등 다양한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구강 내 환경은 수많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관으로도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강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체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군민 구강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성군 시민정원사 교육생 버려진 땅에 정원 조성 나서

장성읍 반구다리 일원에 황금사철·초화류 등 식재

엘로우시티 장성 시민정원사 교육생들이 본격적인 정원 조성에 나섰다. 장성군은 26일 시민정원사 교육생들이 장성읍 반구다리 회전교차로 인근의 방치된 땅에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은 약 57㎡(17평) 정도 규모로, 무분별하게 자라난 잡풀과 적치된 폐기물들이 가득했다. 교육생들은 이곳의 환경을 정비한 뒤 황금사철, 말채, 납천 등의 관목과 그라스(팜파스 그라스, 남작 보리사초, 스크림), 다년생 초

화류(목가갯, 가우라) 등을 식재했다. 정원 조성 참여한 교육생 김모 씨는 “교육 내용을 몸소 실천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정원 조성은 장성군이 시행 중인 ‘엘로우시티 시민정원사 육성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역 곳곳에 자리잡은 소규모 마을정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 5월 개강한 올해 교육은 월 3~4회씩 5개월간 진행되며, 강의는 현지 정원 전문가가 맡는다.



# 나주시, 시 금고 지정

1급고 NH농협·2급고 광주은행

나주시는 최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와 광주은행 영산포지점과 ‘나주시 금고업무 취급 약정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는 제1급고, 광주은행 영산포지점은 제2급고에 각각 선정됐다. 2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지급, 세입세출 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금고업무 취급 약정 체결에 따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는 나주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 7개 기금을 맡아 운영·관리한다. 제2급고에 선정된 광주은행 영산포지점은 5개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 시 자금의 경제적 관리는 물론 시민의 납세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 기업과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지난 26일 지역 5개 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화순군이 협약 업체를 순회하며 체결했다. 참여 기업은 주식회사 경동홀딩스, ㈜지크린텍, 화순축산업협동조합, 비오메드 요양병원, 마르요양병원이다. ‘여성친화 일촌기업’은 새일센

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체 또는 채용을 약속한 기업체로 새일센터가 여성친화적 일터를 조성, 취업자 고용유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업체다. 새일센터와 협약 기업에는 구인·구직 취업 지원 연계, 취업자 사후 관리, 새일 여성 인턴 지원 사업 우선 연계, 환경개선 자금 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재

직 근로자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군 관계자는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키우겠다”며 “새일센터가 지역 사회, 산업계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해 여성의 일자리 창구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